

삼천리1932년 12. 01.

外國의 代表的 新聞觀

李灌鎔

한 新聞紙로서 「代表的」이란 형용사를 자랑하자면 여러 가지 조건을 具備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쓰는 動機가 代表的 外國 新聞紙를 學的으로 연구함에 잇지안코 朝鮮의 新聞紙讀者에게 한 便宜를 供給하고자 함에 잇슴으로 여기 代表的이란 말을 쓰게 된 것은 한 특별한 사정에 基因된 것입니다. 各 新聞紙의 外國 電報 欄을 살펴 보면 무슨 사건하든지 이 러났을 때 一定한 外國 新聞紙의 評論을 揭載하여 政黨乃至 한 민족의 該사 건에 대하여 取하는 태도를 「代表的」으로 報道하는 것이 자못 頻繁하것만 그 新聞紙의 계급적 立場과 정치적 성질을 모르고는 그 電文의 意義가 통하 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뜻으로 代表的이라고 할 만한 外國신 문 몇개를 소개하고자 함입니다.

爲先 英國의 各新聞紙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세계적으로 各聲이 藉藉한 「타 임쓰」紙를 빼여 노출 수 업습니다. 距今143년 즉 1785년에 「존윌터」란 사 람이 創刊하여 당시의 귀족계급을 대표하든 「핏트」의 정책을 공격하고 날로 旺盛하든 中産階級의 利益을 擁護하여서 英國뿌어쥬아 떼머크래씨의 機關紙 가 되엇섯담니다. 罰金과 禁錮의 刑을 바다 가면서라도 「윌터」는 政府정책의 裏面을 폭로하고 腐敗한 정치가(例컨댄 멜빌卿가튼 사람)를 몰락식힘에는 신 문계의 先驅가 되엇섯담니다. 歐洲大陸에 처음으로 特派員을 派遣하여 「나폴 레온」전쟁의 記事를 政府보다도 신속히 報道하엿스며 「위털루」戰後의 始初 를 政府보다 24시간이나 일즉이 發布하엿다는 것도 「타임쓰」의 역사상 큰 자랑거리라 합니다. 이렇케 투쟁한 결과로 발서 百年前에 그 部數가 萬에 達 하엿고 其後 「크림이야」 전쟁당시에 이르러서는 다른 신문부수는 2,700에 不過하엿것만 「타임쓰」는 발서 5萬을 돌파하엿섯담니다. 당시의 「타임쓰」는 能히 內閣을 붕괴식히고 「크림이야」 派遣軍을 再次 조직식힐 만한 勢力까지 가졌섯담니다. 현재의 「타임쓰」의 部數가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한 일이 업습 니다만 하여간 지금이라도 「타임쓰」紙를 통하여 英國의 內外정책이 如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더러 그 論說로 該國정책형성에 多大한 영향을 주는 것은 否認치 못할 사실입니다. 혹은 「타임즈」紙를 政府 機關紙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스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各政黨關係를 超越한 독립新聞紙인 것은 특히 大戰중에 取한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政見과 사회관이 保守的 反動的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지만 어느 政黨에 隸屬되숄안은 것 만큼 否認 못할 사실입니다.

여기 이저서는 안될 것은 「타임즈」紙의 對 日本 태도입니다. 때와 경우를 따라서 그 형식과 정도는 다르겠지만 항상 同情과 善意로 對한 것이 사실입니다. 每月 「日本部」라는 특별附錄을 發行하여 日本의 산업발전과 문화 사업을 널리 찬양하고 특히 日本통치하에서 朝鮮이 얼마나 신속히 발전되어 가는 것을 數十餘 種의 論文과 사진으로 全世界에 證明코자 노력하는 것을 보면(以下3行略-원문)

「타임즈」외에 英國신문으로 보고는 안사 볼 수 업는 그 유명한 「맨체스터 가디언」이라는 영국 자유당계 신문입니다. 산업중심지인 맨체스터에서 英國의 산업 뿌루쥬아지의 이익을 擁護하면서도 노동운동과 일반적으로 세계혁명운동에 대하여 그 이데올로기가 許하는 限에는 「맥도널드」類 사회주의자보다도 오히려 篤타운 同情을 갖는 것이 그 특색입니다. 여기 모순이 있는 것 같으나 그 露國革命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자유주의적 태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露國에서 혁명이 이러나면서 特派員을 派送하여 혁명적 과정 건설적 활동을 충실히 報道할 뿐 아니라 원칙으로는 그 독재정치에 반대하면서도 그 처지와 경우를 가급적 만흔 同情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英國정부에 대하여는 非干涉주의를 위하여 猛烈히 투쟁하고 또 적극적으로 외교통상關係의 再開를 熱誠으로 主張함에 그 자유주의적 태도가 보입니다. 大戰이후에도 한편으로는 獨逸의 復興에 同情하고 伊國의 反動정책을 공격하며 佛國의 「파씨슴」을 배척하고 米國의 歐洲政亂에 不참가함을 이해하며 日本의 侵略政치를 공격하고 中國의 국민운동을 적극적 태도로 擁護코자함에 英國自由黨의 左翼的 색채가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나 「맨체스터가디언」紙도 「타임즈」紙와 갖치 어느 政黨에 隸屬的 關係를 맺지 안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自由黨系 신문으로 일흔잇는 것은 「로이드, 죠오지」系의 「데일리, 크론니클」, 自由黨인 텔리겐짜야系의 「데일리뉴즈」 등이 있는데 「데일리뉴즈」는 英國의 자랑하는 소설가 「떡켄쓰」가 創刊한 것으로 英國의 小뿌어쥬아 지식계급의 愛讀하는 新聞紙입니다. 保守黨系 신문으로 猶太人이 경영하는 「데일리 텔래그래프」 귀족사회와 富豪계급이 유행세계에서 愛讀하는 「모닝

포스트」僧侶와 地主계급의 이익을 擁護하는 「스탠다아드」 등이 있습니다. 保守黨機關紙로 有力한 「펠멜 까젯트」와 自由黨機關紙로 「웨스트만스터 까젯트」는 서로 猛烈한 競爭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線上에서 猛烈히 투쟁하는 「데일리 헤럴드」와 「데일리 씨티즌」이 잇스나 공산系로는 아직 日刊신문이 엮는 모양입니다. 그 외에 「데일리, 메리」과 「데일리, 익스프레스」가튼 쉐체순을 과리먹는 다른. 신문이 잇스나 우리가 그다지 여러 가지 신문을 우리가 여기 기록할 필요가 엮습니다.

週刊 報에 대해서도 여기 중요한 것 몇개 생각하고 씩습니다만 紙面관계로 이것은 생략하겠습시다. 그러나 특히 「옵서버」에 대하여 기록해 둘 것은 그 편집자 「까빈」氏의 明哲한 政治적 의견입니다. 英國에서 무슨 사건이든지 생기면 英國 內뿐이 아니라 歐米 各國에서도 「옵서버」紙上에 나타나는 氏의 評論을 各新聞紙에서 引用함이 거진 常例입니다. 東亞朝鮮 兩新聞紙上에도 氏의 評論이 引用된 것을 내가 屢次나 본 일이 잇습니다.

米國 新聞紙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너무 적어서 자세히 말할 수 엮습니다만 하여간 外國에서 米國의 대표적 新聞紙라고 전하는 것은 共和黨系의 「뉴욕, 헤럴드」 猶太人 經營으로 共和黨系의 「뉴욕타임즈」 民主黨系이 「뉴욕 월드」 쉐체순 黃紙라는 評을 듣는 「허스트」系의 「뉴욕 애메리칸」 등이요 그 외에 「취카고 트리뷴」 「民」 「뉴욕 이브닝 포스트」 (自由) 「스프링피일드 리퍼블리칸」 (共) 워싱턴 포스트, 필라덴피아 퍼블리컬저 크리스찬 모니터 등이 米國의 輿論을 대표한다고 전하나 米國이란 것은 한나라라는 것보다 차라리 雜多한 민족이 모여 사는 한 大陸임으로 輿論이 다른나라에서와 갖치 統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느나라 뿌어쪼아 新聞紙가 안그럴것이 안이지만 「업톤 썩큰레아」氏의 <31> 「쁘래스책이크」이란 작품에 의하건댄 以上에 例記한 各新聞紙는 거진다 상품화되였고 大금융자본의 노예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左翼系의 신문으로는 내가 아는 것이 左翼자유주의를 標榜한다고 할 만한 「네이슨」 「뉴리퍼블릭」과 공산系의 「워커스 위클리」 등의 週刊報입니다.

獨逸 新聞紙로 國內國外에서 가장 만히 존경받는 것은 자유주의적인 「프랑 크푸엇터 짜이룅」 「빠얼린너 타게뵐랏」 「포씨쉬 짜이룅」 보수주의적인 크른니 쉐 짜이룅」 反動的 汎獨逸주의적인 함부역기쉐 나흐리흐텐」 문크너너이예스테 나흐리흐텐 「노드 떠잇츠 알게마이네 짜이룅」 (政府機關紙) 등이 「요모겐 포스트」란 民本주의 機關紙와 「포어웨쓰」란 改良주의 機關紙 「뭇레판네」란 公산당 機關紙가 잇습니다.

佛國新聞紙로 가장 역사가 길고 莊重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쥬어날떼, 페

마」(1789년 創刊)라는 保守主義 夕刊紙입니다. 발서 「나폴레옹」 당시에 32,000이란 部數에 達하여 佛蘭西 輿論界의 霸權을 掌握하였섯다 합니다. 그러나 어느 內閣이든지 半官紙로 사용하는 것은 「르땅」이란 夕刊이요 「포양까레」 內閣은 (르땅)외에 「르마땅」이란 朝刊도 사용한다고 전합니다. 佛蘭西新聞紙는 一般으로 그 政治적 立場이 分明하지 못하여 一定한 주의하에 類分하기 곤란하나 대개 「피가로」 「주어날」 「포트 빠리지앙」 등은 穩健한 自由共和주의적 경향을 代表하여 小뿌어쥬아지의 要求에 應하고 「라뻬트리랑」 「트랑씨장」 「르골루아」 등은 反動的 新聞紙입니다. 「랑트랑씨장」이란 新聞紙는 公산당 機關紙인 「루마니떼」와 함께 XX年 以後로 朝鮮사정을 만히 揭載합니다.

伊太利 新聞紙에 대하여는 別로 아는 것이 업스나 自由주의적인 「라꼬리에레뎀라 세라」란 夕刊紙와 「트리분나」란 朝刊紙 外에 保守的인 「포폴로 디랄리아」 등이 國外에까지 名聲이 藉藉하드니 「뭇솔리니」 통치하에서 全國新聞紙가 파씨스트化되어 간다 합니다.

최후에 露國 新聞紙로는 「이스베스찬」라는 政府機關紙와 「프라브다」라는 公산당 機關紙가 있고 其外에도 몇가지 日刊이 잇다 하나 이 두가지가 진정한 의미로 代表적인 것은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各國 新聞紙의 편집내용에 대해서도 아는 바를 다 기록하고 싶습니다만 너무 紙面을 차지할 듯 하여 여기 긋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해 들갓은 米國 新聞紙는 평론보다도 뉴스를 만히 揭載하고 이와 반대로 獨逸新聞紙는 뉴스보다도 評論을 중히 너기는 경향이 잇스며 英國新聞紙는 두가지를 다 平分히 揭載할 뿐 아니라 堅實하고 眞摯한 맛이 잇서서 獨米新聞紙보다 優越한 것 갓치 생각합니다. 佛蘭西新聞紙는 一般으로 貧弱하여 뉴쓰도 충분치 못하고 評論도 만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5°리 朝鮮이 新聞紙는 뉴쓰가 적은 편입니다. 評論이 만흔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뉴스라고 揭載되는 것이 外國新聞紙에 비하여 무엇보다도 貧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면 記事를 단순히 뉴스로만 취급하지 안코 評論式으로 揭載하는 경향은 外國新聞紙上에 보지 못한 일입니다. 朝鮮에서 이러한 방식이 필요한 줄을 알면서도 사회면을 읽을 때마다 이상한 감상이 납니다. (舊稿)